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설립 및 운영방향 출연(연) 재도약 위한 디딤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글_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정책관
htyong@msip.go.kr

과학기술은 근세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한 나라의 경제력은 물론 국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임에 반대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정부 출연(연)의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출연(연)의 개방과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1999년 정부는 출연(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연구회 체제를 도입하였다. 과학기술분

글쓴이는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교과부 과학벨트기획단장·기초과학 정책과장, 제17대 인수위원회 실무위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과기부 혁신기획관을 지냈다.

야 3개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로 출발하여 2008년 기초 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로 재편되었고 지난 6월 30일 단일연구회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하였다.

2013년 7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연구회 기능 재정립 방향’이 확정된 후, 미래부와 양연구회는 통합 TF를 구성하여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연구회는 출연(연) 간 기능조정,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협동연구 지원 등 개별 출연(연)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출연(연) 지원·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회 체제의 변동은 출연(연)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대학과 기업의 R&D(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추격형 R&D 전략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이제 출연(연)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출연(연)연구기관은 과거의 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에서 선도형(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을 위해 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출연(연) 간 융합을 촉진하고 개방형 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통합연구회의 설립으로 변화의 바람에 마주선 출연(연)이 새로운 킥오프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되었다.

출연(연)의 든든한 후원자, 지원형 조직으로 변화

새롭게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 출연(연)이 한지붕 아래 모여 기관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 안정적 예산 확보와 출연(연)

출연(연)의 개방과 협력 생태계 조성

-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연구에만 전념 -

개방과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지원육성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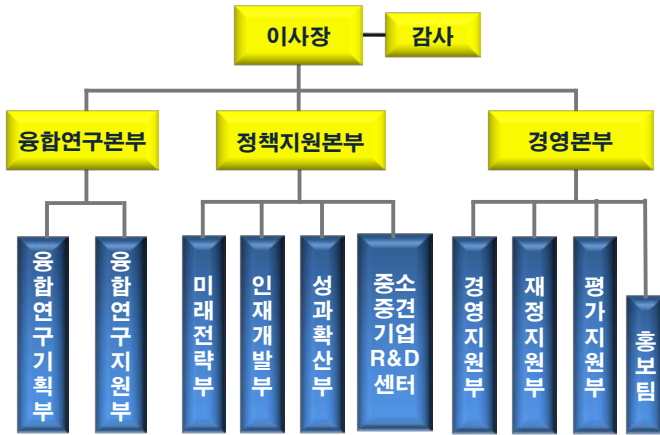
출연(연) 간 협력,
융합연구 지원

연구회 운영
효율성 제고

공통부서 통합, 조정

정책, 기획 부서 신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단일화 추진방향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조직도

공통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연구기관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출연(연)의 개방과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회 통합은 ▲출연(연) 간 협력·융합연구 지원 ▲출연(연) 지원육성 기능 강화 ▲연구회 운영효율성 제고라는 3가지 측면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기존 연구회의 관리 중심의 사무처 체제를 지원 중심의 3개 본부체제

로 재편하였고 기존 양 연구회 공통부서를 통합·조정하고 정책·기획부서와 융합연구 지원부서를 신설하였다.

각 본부는 앞서 기술한 3개의 설립방향에 대응하여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융합연구본부’, 국가연구개발의 선도역량확보를 전담하는 ‘정책지원본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경영본부’로 구성되었다. 이 조직재편의 핵심 변화 방향은 기존의 ‘관리형 조직’을 탈피하여 ‘지원형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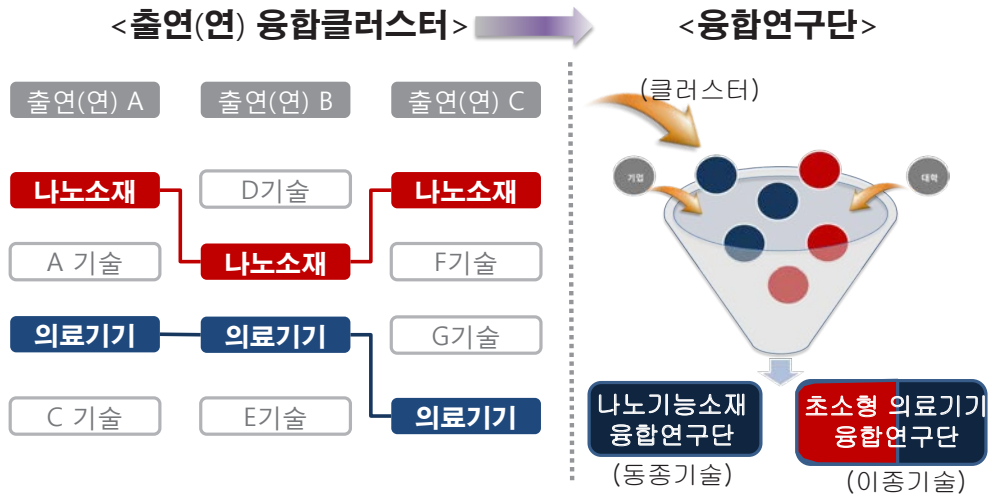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기정출연법을 근거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위해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 기획, 연구기관의 협동(융합)연구 지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개정된 법률은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새로운 책무로 연구회에 부여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연구회는 주어진 역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출연(연) 간 융합연구단 운영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소관연구기관 임무정립 등 3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출연(연)간 융합연구 체제 구축

출연(연)의 거버넌스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단일화한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출연(연) 간 융합 활성화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기술들을 서로 연결하고 응용하는 융합연구가 확대되는 패러다임 하에서 그동안 우리 출연(연)은 소속 연구회라는 장벽으로 다른 연구회 소관 기관과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 소관연구기관의 연구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출연(연)의 융합 활성화 체제를 구축 중이다.

우선,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력분야 발굴을 위해 해당분야 연구자들이 상시적으로 교



▶ 고위 임무 분석을 통해 출연(연) 간 협력 분야를 발굴, 전략적 수행을 위한 협업체계(클러스터) 구축

류·협력하는 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융합클러스터를 통해 서로 다른 출연(연) 간 협업이 가능한 연구분야를 도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융합연구 테마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프로젝트형 ‘융합연구단’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정 융합연구 과제에 따라 관련된 주요 인력·장비가 확보된 기관(주관기관)에 융합연구단을 설치하고 출연(연) 인력이 한곳에 결집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종료 후에는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일몰형 체제이다. 융합연구단은 2014년 2~4개를 선정하고 2015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출연(연) 간 융합연구를 총괄·조정할 ‘출연(연) 융합연구위원회’를 연구회 내에 구성·운영하고, 기관·연구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참여 기관에는 인력교류 성과 등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연구자에게는 파견수당, 주거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복귀 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위를 보장할 계획이다.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전진기지화 컨트롤 타워

출연(연)의 기술적 역량과 성과를 사회로 이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일자리 부족 등 여러 사회적 문제와 연계되어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출연(연)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출연(연)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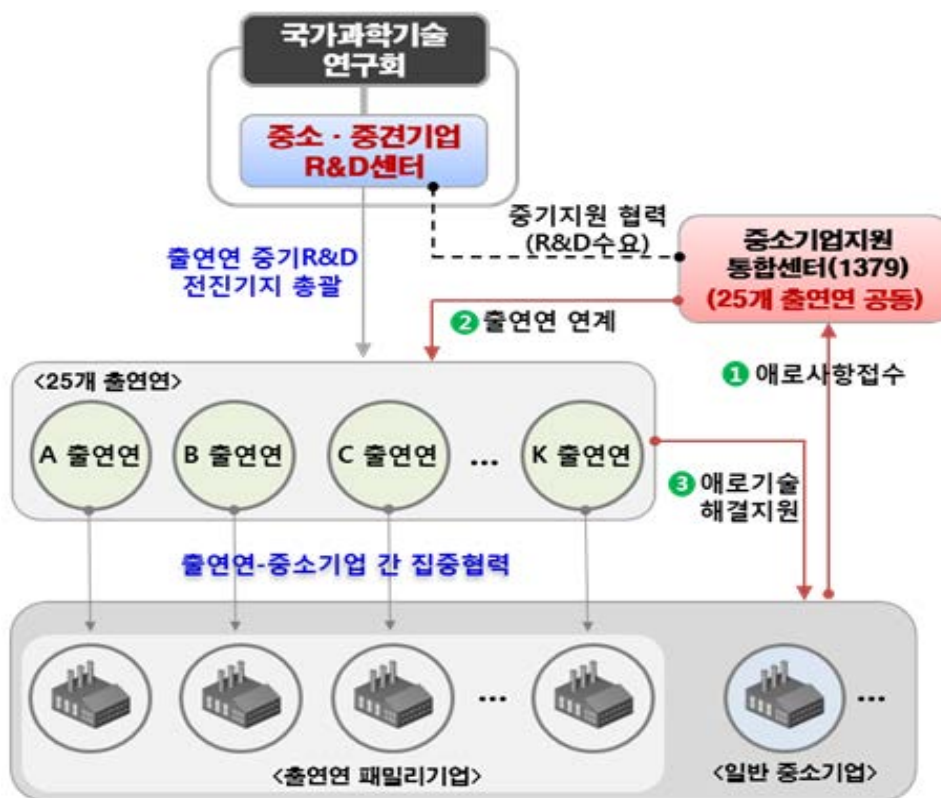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중소·중

견기업 R&D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출연(연)은 중소·중견기업 협력 R&D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밀착하여 기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전진기지화를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R&D기획·지원, 기술예고제와 특허무상이전, 패밀리기업 지정 및 출연(연)과의 교류확대, 연구자 참여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연구회 '정책지원본부' 내의 '중소·중견기업 R&D센터'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설치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등을 활용하면서 중소·중견기업 R&D전진기지화 방안을 총괄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작년에 31개사 수준인 출연(연) 내 기업부설연구소가 17년까지 100개로, 같은 기간 2천246건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 건수가 3천4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관 연구기관 임무 정립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에서 정부가 할 일을 대신 수행한다. 학문사회에서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고급인력 양성에 힘쓰는 대학이나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출연(연)은 정부가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한다. 다른 두 주체와 달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의 임무는 사회의 미래 발전 및 이를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다.

우리나라 출연(연)은 민간부문 기술개발이 미흡했던 시절 선진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대기업과 대학의 연구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탈추격형 시대에 접근하는 최근 들어 임무가 명료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의 요구 확대, 안전·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수요 확대 등 사회적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비해 인건비를 위한 외부과제 수주에 급급해서 임무의 설정과 수행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정부는 작년 7월 말 국무회의에서 ‘출연(연)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의 실천과제로 출연(연)의 중장기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를 약속하고 출연(연)들은 자체적으로 고유임무를 재정립하고 연구사업을 유형 특성에 맞게 관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기존 기초·산업기술연구회는 출연(연)들의 이러한 임무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고유임무재정립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의 자문과 조언을 거쳐 임무재정립(안)들이 수립되었다.

25개 출연(연) 전체를 아우르게 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러한 임무재정립의 결과 진행을 모니터링하면서 기관 자체 정립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이다. 과거의 개별연구회 체제에서는 에너지, 신약개발 등 주요 분야들을 양 연구회가 나누어 가지고 있어서 임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국가 전체의 출연(연)들이 하는 일들을 파악하고 협력 체제를 구성하기에 유리한 위치에서 있다. 독일의 헬름홀츠협회가 5년, 막스플랑크협회가 6년 단위로 대분야 관점에서 소관기관들의 역량과 향후 분야 전망을 검토하여 사업의 큰 방향을 조정하는 것처럼 연구회도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출연(연)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조속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지원과 관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설립은 출연(연)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의 마련이며,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향한 하나의 도전이다. 디딤돌을 딛고 도약하여 도전이 결실을 보는 것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여시구진(與時俱進)’이라는 말이 있다. 단순히 시대의 조류에 순응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적응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진진해 나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과학기술계가 처한 환경, 출연(연)과 연구회가 맞이한 현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시구진’의 실천이다.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구기관의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와 연구기관 간의 소통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출연연구기관의 발전은 정부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토대를 만들고, 여기에 뿌리내린 변화와 혁신이 함께한다면 출연연구기관이 창조경제시대 국가연구소로서 제2의 전성기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